

‘사월의 바다’에 바치는 ‘오월 시인’의 노래

임동학 시인, 시집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 발간

‘매장시편’ 이후 30년...역사적 맥락 속 변화 예감

타자로 시선 이동...세월호 희생자 헌시 등 51편 수록



“그 동안은 내 아픔만 을 이야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타자를 불러 내 슬픔을 노래했던 거지요. 그러나 정작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뭘 했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시편’의 시인 임동학(사진). 1987년에 출간된 ‘매장시편’은 광주항쟁의 비극성을 신화적 상상력과 교차해 준열한 어조로 노래했던 시집이다. 올해로 ‘매장시편’ 출간 30주년을 맞는 임동학 시인이 9번째 시집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문학수첩)를 펴냈다. 그는 등단 이후 출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관통해 온 죽음과 고통의 서사화에 주력해왔다.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을 배면에 둔 자기 성찰은 시적 설득력을 확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월 광주의 시인이라는 명예를 간직했다.

그러나 이번 시집에서는 시의 시선을 ‘나’에서 ‘타자’로 향한다. 일반적으로 30년은 한 세대를 구분하는 물리적인 시간이다. 사람이든 사회든 국가든 30년은 적잖은 변화를 견인한다. 시인에게도 30년이라는 시간은 시적 깨달음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시집 출간을 계기로 최근 임 시인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한신대 문예창작과에서 시를 읽고 배우며 가르치고 있는 시인은 ‘운명’이라는 말을 꺼냈다. “나의 시를 떠돌고 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며 “한 세대가 흐른 후에야 겨우 그걸 알았는데, 그것은 ‘운명’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운명은 그가 문학을 하게 된 것, 5·18 당시 시위에 나선 것, 그리고 이후 ‘오월 시인’이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온 것과 무관치 않을 터였다. 작금의 발표 명령자를 비롯한 오월 진상 규명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상황은 그에게 남다른 소회로 다가올 터였다.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자기 소망, 갈망만을 얘기했지 정작 누군가의 간절한 애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을 때, 그리고 우리를 찾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새 시집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의 시적 지향점이 읽히는 대목이다. 시인은 오월 광주에서 ‘매장’된 벌거벗은 몸들을 ‘사월의 바다’(세월호 참사)에 ‘수장’된 벌거벗은 몸들을 떠올린다. 모두 51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에는 시인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포함돼 있다.

“네가 깊고 푸른 심연의 난간에 그나마 성한 영혼의 한 발을 걸친 채 그믐달처럼 매달려 있을 때/ (중략)/ 내가 확인하는 것이라곤 반항 없는 메아리처럼 사라진 너의 뒷등을 오롯이 기억하며 겨우 여기 살아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을 뿐/ 정작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간절하게 부르며 거대한 수압 같은 고독과 마주하고 있었을 때”

이처럼 표제시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는 세월호 참사로 수장당한 생명들을 연상한다. 시인은 오월 광주의 ‘매장’된 벌거벗은 몸들과 사월의

바다에 ‘수장’된 벌거벗은 몸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들여다본다.

“80년대의 ‘매장시편’은 역사적 책무와 자기 환멸이 시를 쓰는 동인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누군가 나를 부를 때’는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변화의 징후를 탐색하고 이후의 세계를 예감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지영 문학평론가는 오월의 광주는 사월의 바다와 “발생적 동일성”을 가진다면서 이 두 공간은 ‘함생’하면서 “광장의 풍경과 사랑의 길을 생성시켜 나갈 것인지 예시돼”있다고 평한다.

한편 “운명처럼 시인이 됐다”고 말할 시인은 “입학 직전까지 시인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불현 듯 문학도의 길을 선택한 후 뜻하지 않은 역사적 격변에 휘말렸다”고 한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역사와 개인, 전체와 부분의 문제를 주요 시적 화두이자 삶의 자양으로 삼아 암울하고 험난한 시대를 관통해왔다”고 덧붙였다.

임 시인은 1987년 ‘매장시편’으로 등단한 이래, 모두 8권의 시집과 각 1권의 시문집과 산문집, 시화집과 번역시집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 유럽문화예술학회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선정

유럽문화예술학회(회장 정금희 전남대 예술대 교수) 학술지가 최근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정책 발표 후 광주·전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09년 창립된 유럽문화예술학회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유럽의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해왔다.

창립 이후 총 1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해온 유럽문화예술학회는 지난 5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럽의 박물관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유럽 미디어아트와 프랑스 박물관 역할 등을 발표했다. 또 매년 두 차례 ‘유럽문화예술학회’를 발간하고 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럽문화예술을 연구하는 학문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온 유럽문화예술학회는 이번 등재 후보 학술지 선정에



정금희 회장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전남의 문화예술 정책 연구와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길(전남대 교수) 초대 회장에 이어 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정금희 교수는 “이번 학문적·정책적 업적을 바탕으로 서유럽뿐 아니라 북미와 동유럽 국가와도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 국제적으로 광주·전남의 학문적 외연을 넓힐 것”이라며 “또 유럽의 기관, 미술사학자, 평론가, 전시기획자들과 협력, 국제 공동 연구와 국내·외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작가 임금기준 법으로 정한다

신진작가 월 236만원 기준...국공립 미술관 시범 운영

국내 미술작가들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체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폴란드 등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인 ‘아티스트 피’(artist fee)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다.

문체부가 이번달 마련한 작가 보수 세부기준은 중견·원로 작가는 월 472만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원이다.

이 같은 월임금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한 것이다. 여기에

전시 참여료, 전시 기간,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치치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보수를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진작가가 한 달 내내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월 236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관행적으로 무시돼 왔던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도는 앞으로 법제화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모든 미술전시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에는 보수의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인문지행 ‘작가와 만남’ 15일까지 참가자 모집

시민 인문학공동체 인문지행이 ‘작가와 만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진행되는 ‘자존감을 키우는 인문학’ 강좌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좌는 오는 16일~11월11일(토요일 오후 3시~5시)까지 4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네 책방 심가네박씨에서 열린다.

오는 16일에는 황룡년 전라도닷컴 편집장이 ‘풍년식탁, 손스러움의 아름다움과 맛’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어 10월 14일에는 이승우 소설가(조선대 교수)가 ‘사랑, 아직도 가능한가?’에 대해 강의한다.

또 정수일 교수(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10월 28일)의 ‘우리에게 ‘실크로드’는 무엇인가’, 서명숙 작가(제주 올레길 이사장·11월 11일)의



정수일 교수

서명숙 작가

‘영조언니-기억해야 할 그 이름’ 강의가 이어진다.

심가네박씨 서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pac-damm@hanmail.net)로 사전신청해야 한다.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9-0687,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7만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볼링장·탁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 가능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본권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개인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이번 달부터는 동네 탁구장, 볼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맹점이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업 방향을 4일 발표했다.

먼저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동네 주변의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통합문화이용

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체육 분야에서는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와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관람, 체육사 등 운동용품에서만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허용 체육시설은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승마장, 수영장, 빙상장, 체력단련장 등 모든 체육시설이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위해 적극 가맹점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가을철 관광 활성화와 이용편의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들에게 162개 가을 국내여행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가마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우가격의 2/3

외국 갈비살 20,000원
외국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외국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